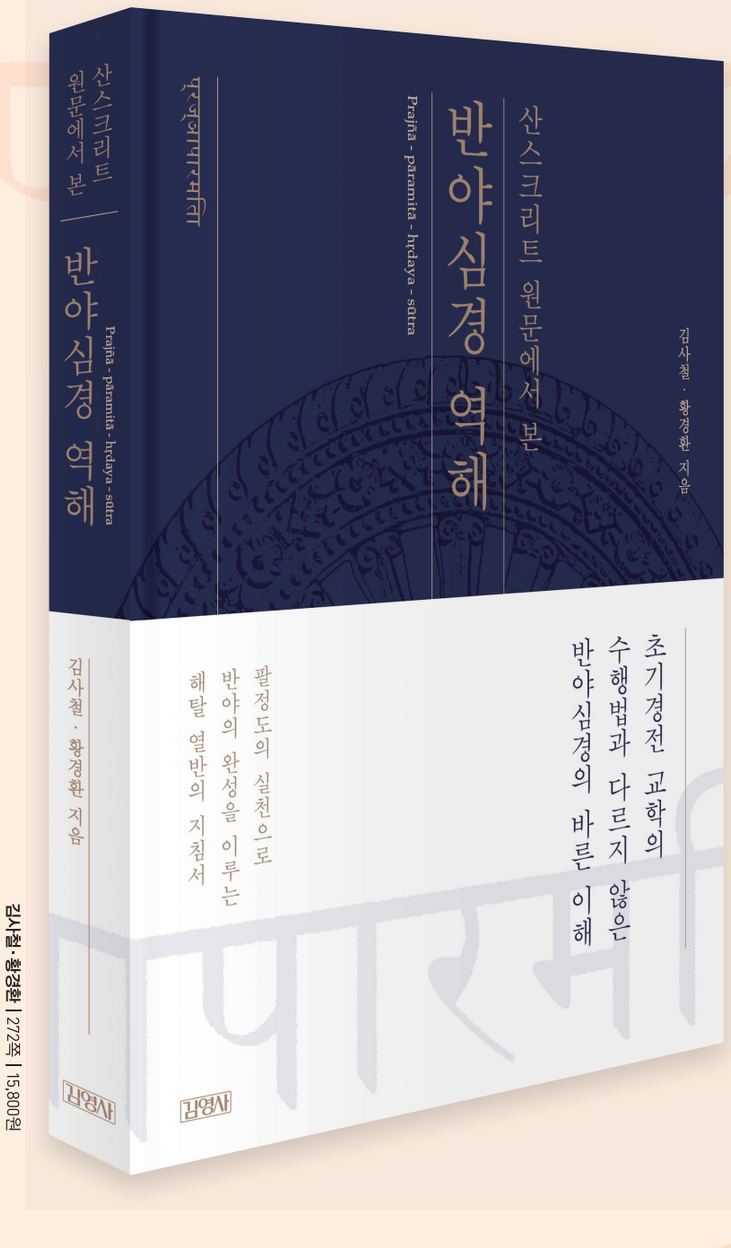
비밀스럽고 난해하다면 《반야심경》이 아니다

초기 경전의 교학 이론과 수행법을 통하여 '공'과 '지혜'의 의미를 새롭게 밝힌다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가장 짧지만 가장 많은 해설이 난무하는 《반야심경》 왜 이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할까?

《반야심경》이 어려운 이유는 한문 자체의 난해함과 한역의 부정확성 때문이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원문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어내며, 초기 경전의 수행법을 기반으로 하여 《반야심경》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한다. 《반야심경》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명상 수행과 이를 통한 완전한 깨달음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는 참신한 시각에서, 초기 경전의 다양한 경문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지혜의 완성', 즉 '반야바라밀다'란 계·정·혜 삼학, 즉 팔정도의 실천과 완성임을 명쾌하게 밝힌다.

"《반야심경》을 초기불교 수행법에 따라 체득하겠다는 도전과 진솔한 체험이 담긴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반야심경》의 생명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황경환 불법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불교연구가이자 사업가이다.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학과를 수료하였고, 현재 동국대학교 명예 철학박사이다. 1977년부터 한국불교연구원에서 30여 년간 이사 및 연구위원으로 활동했고 국제 PTP(People To People: 세계 평화 구현을 위한 국제 민간 외교 단체) 한국본부 총재직 및 울산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하였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국제 PTP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 현재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이며 21세기 불교포럼 공동이사장이다. 저서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 있다.

김사철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불교 수행자이다. 1934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미국 뉴멕시코 주립대학에서 응용수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방위산업체인 휴즈사에서 21년간 근무하였다. 1993년 12월 은퇴 후 귀국하여 동국대학교 · 창원대학교 · 한국불교연구원 등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연구' '고타마 명상과 깨달음의 과학' 등을 강의하였다. 현재 미국에서 고타마 명상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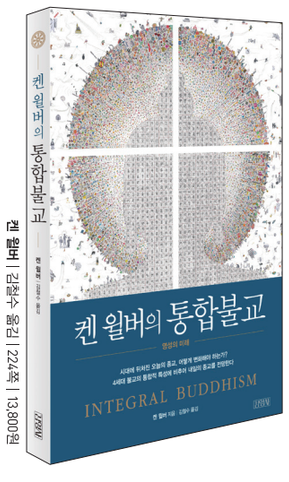
김사철 · 황경환 | 272쪽 | 15,800원

TEL : 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김영사

《무경계》의 저자 켄 윌버가 말하는 종교의 미래, 미래의 종교!

차세대 불교를 모델로 한 혁신적인 변화와 전망



켄 윌버 | 김철수 옮김 | 224쪽 | 13,800원

켄 윌버의 통합불교

Integral Buddh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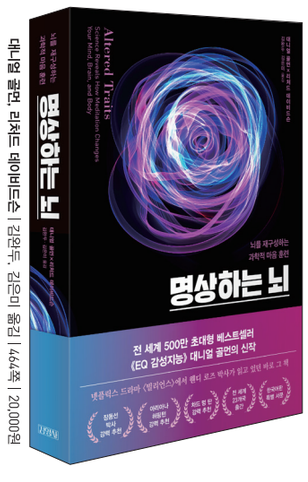
오늘의 종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계적인 사상가 켄 윌버는 그 희망과 대안을 새로운 불교의 영적 시스템에서 모색한다.

"인간은 '성장의 길(의식의 구조)'과 '깨어남의 길(의식의 상태)'이라는 아주 다른 두 가지 차원의 발달을 각각 경험한다. 이 둘을 분별하고 함께 탐구하지 않으면 진정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

전 세계 500만 초대형 베스트셀러 《EQ 감성지능》 대니얼 골먼의 신작

과학은 명상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전 세계 23개국 출간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 한국어판 특별 서문 · 장동선 박사 강력 추천 · 차드 멍 탄 강력 추천



대니얼 골먼, 리처드 데이비드슨 | 김한두, 김은미 옮김 | 464쪽 | 20,000원

명상하는 뇌

Altered Traits

과학적 연구로 검증하고 밝혀낸 마음 훈련이 가져오는 기적 같은 뇌의 변화

"감마파는 정신적 요소들이 '찰칵!' 하고 맞아 들어가는 통찰의 순간 잠시 발생한다. 하지만 명상가들의 뇌에서는 감마파가 일상적으로 유지되었다. 전대미문의 발견이었다."